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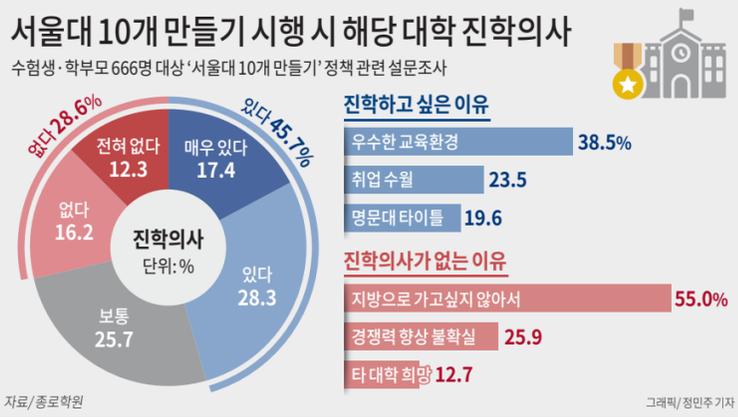
수험생·학부모 45% “상위권 대학 추가시 진학의사 있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설문조사 수업 등 우수한 교육환경 긍정적 입시경쟁 완화 효과에는 회의적 종로학원 “또 다른 서열화 우려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진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시 경쟁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9일 종로학원이 고등학생과 재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학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5.7%로 나타났다. 이는 진학 의사가 없다는 응답(28.6%)보다 17.1%p 높다.

서울대 10개 대학 중 한 곳에 진학하



고 싶은 이유로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3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학생 지원이 강화될 것 같아서(13.9%) 순으

로 조사됐다. 반면, 진학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55.0%)가 과반을 넘었고, 거점 국립대 경쟁력 향상이 불확실해서(25.9%),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서(12.7%)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로 시행

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2.4%에 그쳤고, ‘아니다’는 응답은 4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아니다’라는 응답도 14.3%에 달해, 입시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거점 국립대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의사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47.0%로, ‘있다’는 응답(26.3%)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방권에 서울대 분교가 생긴다 해도 지역 내 정착을 제고를 위해 기업 연계 등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시 추가되는 예산의 사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교수진 및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3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학금·기숙사 등 학생 지원 확대

(31.6%), 산학협력 등 취업 연계 활동(31.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 시행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이냐에 따라 진학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지역 내에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다면 졸업 후 지역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입시 경쟁 완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다른 서열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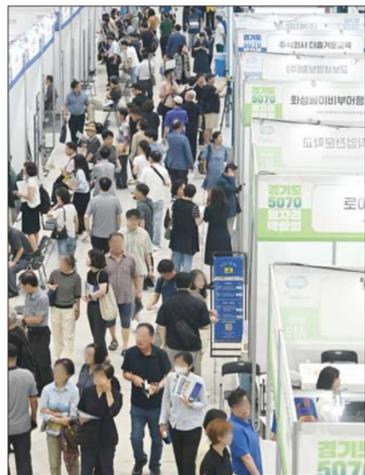
경기도, 50~70대 중장년 취업 돕는다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 하반기 ‘그레이트잡투어’ 추진

경기도가 9일 수원메세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기 5070 그레이트잡투어(Gray it-job tour)’를 추진한다.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50~70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연계 행사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전직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한 현장 채용에 그치지 않고,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관련 직업군 소개와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가 함께 이뤄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KB플드라이프케어, CJ프레시웨이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약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채용설명회 ▲채용관·홍보관 ▲취업준비관 ▲일자리체험관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세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된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중장년 친화형 일자리 정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육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

(0~2세)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집행 계획 교재·교구 등 보육의 질 향상 기대

교육부는 7월부터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0~2세 및 장애아 53만5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인상 예산 113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부모보육료가 지

원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부모보육료는 ▲0세반 월 54만원→56.7만원 ▲1세반 47.5만원→50만원 ▲2세반 39.4만원→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만원→6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아동 1인당)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0세반 62.9만원→66만원 ▲1세반 34.2만원→35.9만원 ▲2세반 23.2만원→24.4만원 ▲장애아 68.6만원→72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냉·난방 등 관리 운영비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

다.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과 같이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추경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독산·시흥동 일대 신통기회 추진

32만㎡ 통합적 개발계획 발표

서울시는 독산로변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에 대해 지역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신속통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독산동 1036·1072 일대 2개소의 계획을 확정하면서 독산·시흥동 일대 약 32만㎡(4개소, 7300세대 내외)에 대한 통합적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 일대의 신속통합계획이 본격화되면,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약 44만㎡에 달하는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

용도지역은 2종7층주거에서 3종주거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최고 40층의 탄력적인 높이 계획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2030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 지원방안도 적극 도입한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독산·시흥동 일대는 기획 초기부터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지역맞춤형 통합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례”라며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신속통합계획이 만들어 내는 신통한 도시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미래 서울특수교육 상상 정책포럼’을 10일 왕십리디노체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서울특수교육원의 비전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교원,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하며 ▲주제 발표 ▲현장 의견 청취 영상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7월 10일 (목)
음력 : 6월 16일

수도권 날씨
25~35°C

| | |
|-------|-------|
| 운동 지수 | ■■■■■ |
| 빨래 지수 | ■■■■■ |
| 세차 지수 | ■■■■■ |
| 외출 지수 | ■■■■■ |

연천 21/33, 동두천 22/33, 가평 21/32, 양평 22/33, 용인 24/34, 평택 23/33, 수원 24/34, 인천 24/33, 파주 21/33, 서울 25/35, 백령도 23/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트럼프 행정부 “중 등 외국인의 농지 소유 제한할 것”
- ▲메르츠 독일 총리, 10월 첫 방중 추진…재계인사 대동



- ▲자동차 뿐만 아니라…“25% 상호관세로 항공기 부품·건설기기 등도 큰 타격”
 - ▲대만군, 최대 규모 ‘한광훈련’ 돌입… 中 무력 침공 대비
- 사진 뉴시스

- ▲국내서 대외활동 나선 시진핑… 규율·반부패 강조
- ▲‘SK온 배터리 공급’ 日닛산차 美공장, 전기차 생산 연기하기로